

21세기 뷰티디자인의 미학적 접근 -한국 미의식을 중심으로-

변영희[†]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Aesthetical Approach of Beauty Design in the 21st Century -Focus on Korean Aesthetics-

Young Hee Byun[†] · Keum 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9년 5월 21일), 수정일(1차 : 2009년 6월 2일, 완료일 : 2009년 6월 3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6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esthetics with emotional, relative, synthetic thinking in the ambiguity of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and ambivalence in contemporary beauty design. Beauty design incorporates makeup and hair design to complete the total images with clothing in fashion shows and Korean aesthetics based on Korean religion and art that include the symbolism of humor, irregularity, moderation, harmony, unification, and emptiness. This study analyzes 864 works of make-up and hair design from 2001 S/S to 2009 F/W to understand the beauty design to summarize the natural, eclectic, classic, poor, humor, and decadent tendencies.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s sense of Beauty Design are summarized as artless naturalism, integrate pluralism, de-constructive deviation, and temperate poverty.

Key Words: Korean aesthetics, Naturalism, Pluralism, Deviation, Poverty; 한국 미의식, 자연미, 다원미, 이탈미, 빈곤미

I. 서 론

의상을 포함해 패션컬렉션의 전반적 분위기를 좌우하는 뷰티디자인은 최근 실험적·해체적·극단적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과거 의상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뷰티디자인만의 독립적인 예술의 장(場)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패션쇼 메이크업이나 헤어디자인은 시즌·무대의 성격·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표현되는데,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부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양 중심적 가치체계의 시각에서 분석되어 온 패션뷰티디자인 경향은 주로 절충성(Eclecticism), 해체성(Deconstruction), 실험성(Avant-Garde) 등의 외적 특징과 이로 인한 탈중심성, 모호성, 전위성 등의 내적 특징을 유발하는 디오니소스(Dionysos)적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면적(Multivalence) 특징이 한국 미학에서는 통합적 사고의 틀에 의한 상대적 관점과 자유분방한 사고에 따른 탈경계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한국의 종교와 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디자인의 개념 및 한국의 유·불·도·무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hee2@hanmail.net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교의 정신사상과 미술, 공예, 무용, 음악, 건축 등 예술 전반에 표출된 미의식을 고찰한다.

둘째, 21세기 뷰티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하고, 미적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현대뷰티현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이 한국의 미의식의 관점에서 해석됨을 확인함으로써 현대패션 뷰티에 나타난 모호성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양의 미적 사유의 틀이 아닌 동양의 통합적·상생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미래 패션뷰티의 다(多)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기존의 관련 논문 및 의류학, 향장학, 미학, 예술학 등의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와 뷰티디자인의 다양한 미적 특성 도출을 위해 4대 컬렉션 중 실험적 성향이 가장 농후한 파리 Prêt-à-Porter 컬렉션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27명(Alexander McQueen, Ann Demeulemeester, Antonio Berardi, Balenciaga, Chanel, Chloé,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Commes des Garçon, Dries Van Noten, Emanuel Ungaro, Givenchy, Hussein Chalayan, Issey Miyake, Jean Paul Gaultier, John Galliano, Junya Watanabe, Lanvin, Louis Vuitton, Martin Margiela, Miu Miu, Sonia Rykiel, Valentino, Viktor & Rolf, Vivienne Westwood, Yohji Yamamoto, Yves Saint Laurent)의 작품 864점을 선별(www.style.com)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단, 각 시즌별 패션작품 1~2점씩만을 추출하여 특정 디자이너의 작품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뷰티디자인(Beauty Design)

패션에 있어 뷰티디자인은 크게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및 네일아트로 구분되나, 컬렉션 전반에 거쳐 의상과 함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모델의 표정을 결정짓는 메이크업과 조형적 실험성을 통해 실루엣을 완성시키는 헤어디자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메이크업(Make-up)이란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함으로써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제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표현기법 및 재료의 제한 없이 여러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성시킨다. 머리 카락을 소재로 다양한 조형미를 실현하는 헤어디자

인(Hair Design) 또한 패션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쇼의 테마에 맞게 두발의 형태 및 색채를 계획함으로써 패션쇼 연출에 있어 의상 및 메이크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창조적 활동을 담당한다. 최근 뷰티디자인의 경향을 보면 패션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함께 자연적, 낭만적, 이국적, 복고적, 실험적, 미래적, 빈곤적 경향 등 무기교적·절충적·예술적·다원적·극단적 양상을 보이는데,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한 뷰티디자인에서부터 전혀 상반된 부조화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와 조형원리를 접목시켜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다.

2. 한국의 미의식

서양과 달리 통합론적 사고체계를 갖는 동양은 자연과 인간이 융합되어 하나가 되는 전체성을 강조하며, 자연은 미추(美醜)를 초월한 미(美) 이전의 세계라 여긴다. 로저 T. 에임즈(Roger T. Ames)의 저서 『동아시아 철학』에서 도동양이 서양의 현상적·2원론적 세계관 대신 일원론적·관계적·연속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주·객체를 분리시켜 사물의 외적 견해를 취하는 서양의 전통과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됨으로써 상호의존적이 되는 동아시아의 사유체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경일, 2002). 특히 예술과 미적 현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의식은 인간정신의 발현으로 각 시대의 자연관·정신관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한국 자연의 다양한 변화는 예술 전반에 거쳐 복잡·다각적 면을 지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달리 수난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역사적 환경의 불균형은 문예, 철학, 종교, 사회 등 제 분야에 이율배반적인 영향을 미쳤고, 체념과 은둔의 숙명론적 사고로 이어져 허탈함과 무관심을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초탈적·대인적 태도는 한민족의 특성이 로고스(Logos)적이기 보다는 파토스(Pathos)적이며, 아폴론(Apollon)적이기 보다는 디오니소스(Dionysus)적임을 보여준다. 즉, 비현실적인 체념에서 초탈(超脫), 허무(虛無), 해탈로의 변화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이기는 하나 여기에 토착적·원시적 민간 고유 신앙인 다신론(多神論)적 사머니즘과 유교의 인본주의사상이 더해져 복잡한 정신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할 수 있다(황영성, 1977). 뿐만 아니라 한국 미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행한 풍류(風流) 사상은 자유분방한 정신의 발현으로 유·불·선 삼교

(三敎)사상을 포함하며, 자연의 경물을 완상·예술을 즐기므로써 초속적이면서 우아한 조화를 추구하는데, 융화나 절도·무상에 의한 다양한 전개상과 함께 긍정적·적극적인 풍아(風雅)의 세계와 부정적·반항적인 풍자(諷刺)의 세계를 포함한다 하겠다(민주식, 2000).

1) 한국 종교를 통해 본 미의식

(1) 무교(巫敎: 샤머니즘)

한국 예술에 잠재되어 있는 고유 원시 신앙인 샤머니즘은 민족적 순수성과 색채적 야수성, 의식의 다양성과 신비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불·도교로 인해 민간 신앙에만 머물러왔다(최준식, 2000). 종교의식에 있어 엄격한 규율에 따르는 서양과 달리 동양 샤머니즘의 의식인 굿은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니는데, 무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풍류도의 덕목에는 유교의 충효와 불교의 선행, 도교의 무위자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유동식, 1997). 또한 조선 후기 예술로 이어진 무교의 자유분방성은 막사발을 비롯해 민화나 장승에 나타난 비균제미, 해학적 과격미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고유성이 한국의 미로 정의내린 무기교의 기교, 무계형성, 비균제성, 질박함과도 상통하는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2) 유교(儒敎)

예(禮)를 실천윤리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특유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유교는 공자를 중심으로 인의예악(仁義禮樂)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악(樂)은 모든 예술을 대표하는 이상세계이자 서양의 쾌락과는 다른 도(道) 그 자체나 도를 깨우친 성인(聖人)의 심리상태 또는 최고 덕목인 인(仁)을 의미한다. 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유학 사상은 인간의 합리적 지성에 공(空)과 유(有)의 모순을 원융(圓融)하려는 자연의 묘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묘(妙)란 음과 양의 묘합이자 태극 또한 음양의 묘합으로 이루어짐을 뜻한다(조민환, 2003). 절제와 검약을 중시하는 유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상극(相剋)보다는 상생(相生)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서양 미학이 즐거움의 충만이나 절제 및 둘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양미학은 즐거움의 충만과 절제 사이의 조화와 융합에 더 큰 비중을 둔다(김영호, 1998).

(3) 불교(佛敎)

깨달음의 종교로서 불교의 연기(緣起)론은 모든 존재를 독립된 개별자나 실체로 파악하기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다

르지 않음(諸法不二)을 강조한다. 또는 욕심을 버리고 세속을 초월하는 선종(禪宗) 즉, 공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특정한 이미지에 몰두하기보다 지극히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김영호, 1998). 이에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사상은 보이는 것은 공이요 공은 모두 보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표현하도록 일깨우는 유무(有無), 물질(物質)과 정신(精神), 극소(極小)와 극대(極大) 등 상대개념을 포함하는 통합적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4) 도교(道敎)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은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요소가 잠재되지 않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함을 뜻한다. 도(道)-무(無)-공(空)-허(虛)로 이어지는 동양적 우주관의 도는 우주전체 및 순환성으로 설명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진행되는 이러한 주기성을 노자는 반(反)이라 하였으며, 모든 유기체의 피드백 시스템으로서의 반(反)은 반대(Antithesis)의 의미와 동시에 반(返)을 의미하는 동서양의 상반된 사상체계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김용옥, 1999). 따라서, 동양은 미의 사유개념에 있어 반(返)이 아닌 반(反)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공존하지 않으며, 미추의 이분법적 사고 또한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서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파악, 사물의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는 대대(待對)의 미를 추구한다(김영호, 1998). 이와 같이 한국 종교와 사상 체계에 내재된 미의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한국 전통예술을 통해 본 미의식

한국 전통예술은 각 시대별 차이 내에서도 공통된 기반을 보이는데 첫째, 외면의 형식인 감각미보다 내면의 정신인 심성미를 중시한 수실거화(守實去華)사상을 들 수 있다. 둘째, 작위를 가함 없이 자연에 귀의하는 정신은 현란·호화가 아닌 소박·검소·담박 미로 향함으로써 선악·미추·교졸의 이원적 평가를 지양, 무작위의 경지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개인의 만족이 아닌 사회 교화를 통한 인격 완성의 도로써 세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고상함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 전통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민주식, 2003).

(1) 미술·공예

고신라와 가야 토기 중에는 기능과 무관한 잡다한 요소를 부착시켜 해학적 측면을 부각시킨 이형토기<그

<표 1> 한국 종교와 사상체계에 내재된 미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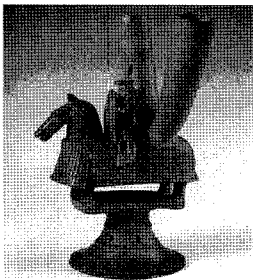
항 목	우주관	사상체계	핵심덕목	미의식
무 교	풍류사상	자유분방 원리, 신비주의	무기고, 무질서	비균제미, 해학미, 파격미
유 교	음양사상, 태극설	상생원리, 이기지묘	인의예악	절제미, 조화미, 융화미
불 교	공(空)사상, 연기(緣起)론	상호의존론, 자유사상	제법불이	불이미, 통합미
도 교	도-무-공-허, 순환이론	대대(상대)이론, 자연주의	무위자연	자연미, 불이미, 공(허)의 미

림 1>가 많은데, 이는 상호연관성을 갖추지 못한 과격적인 요소이자 외모의 골격로 세부적 형태를 생략함으로써 소박한 간결함을 추구하고 있다(권영필, 1992). 고급미술로서 정통회화가 채워지지 못한 하부계층의 욕구를 채워준 민화<그림 2>는 집단적 가치감정의 상징으로 일반화되면서 통속적 동종주술(同種呪術)의 형태로 변모되었으며, 그 속에 보여진 다시점(多視點), 과거·현재·미래의 동시적 표현, 사물의 상호 비례관계 무시하는 자연과 나를 거리감 없는 하나의 대상으로 본 주체와 객체의 미분화(未分化)의식이 깔려있다(임두빈, 1991). 화려한 색을 피하고 먹의 정신성을 구현한 수묵화 또한 형태뿐 아니라 내면의 뜻을 묘사하려는 동양의 심오한 표현으로 흰 여백과 검은 먹의 담백한 조화는 한국적인 정신세계를 함축하며, 사물과 배경의 상호보완적·관입적 특성은 여백(Void)을 대상물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공간을 암시하는 감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유명걸, 2000). 또한 방울만한 눈, 주먹 같은 코, 제멋대로인 이, 귀밑까지 찢어진 입 등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승<그림 3>을 보면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불규칙하면 불규칙할수록 멋이 풍기는 파격미를 엿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막사 발과 분청사기<그림 4>는 유미주의적인 상류층과 달리 장인들의 무의식적·본능적 기예에서 비롯된 평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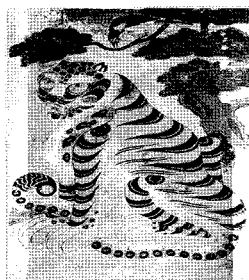
의 산물이자, 기교를 초월해 대담의 일탈과 자연회귀로 이어지는 무심(無心)의 미학을 구현한 것이다. 즉, 화사하게 꾸미는 것보다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우리민족의 심성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장식을 과감히 생략·단순화시켜 전체적인 조화에 치중하는 경향은 오히려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균제성, 파격성, 해학성 등은 작위적 흔적을 최대한 축소시킴으로써 격식에서 탈피한 자유분방함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2) 무용·음악·연극

자연론적·운명론적 생명력과 정신세계를 갖는 한국의 시나위, 북춤, 강신무를 비롯해 국판<그림 5>이나 남사당패<그림 6>들의 춤 속에는 즉흥성과 신명성이 녹아있다. 엄격성을 지닌 서양 종교의식과 달리 동양의 의식인 굿은 고대 제천의식에서부터 무질서한 자유분방함을, 발뒤꿈치부터 딛는 꾸밈없는 자연 형태의 보법에서는 화려·현란함보다는 수수·소박함이 느껴진다. 이는 천지합일(天地合一)의 도에 따라 감각보다 내면의 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욕망을 버리고 선(禪)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려는 인생관이 깃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끝 동작과 시작이 연결되는 한국 춤은 태극선의 미를 중시하는 곡선의 춤으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있으며, 멋들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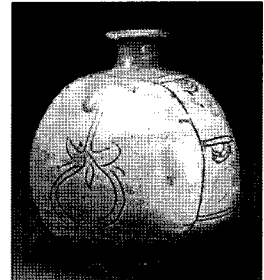
<그림 1> 가야 인물형 토우, 가야



<그림 2> 호작도,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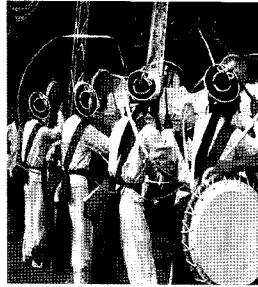
<그림 3> 장승



<그림 4> 모란문 분청, 15-1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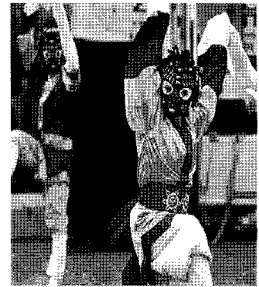
<그림 5> 굿, 김금화



<그림 6> 남사당패



<그림 7> 승무



<그림 8> 탈춤

게 춤추다가 잠시 멈추는 의도적 공백은 여백과 신비성이 녹아있는 예술적 감각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정은혜, 2002). 특히 한민족의 정서가 질게 배어있으며 무속에 기원을 둔 살풀이는 한(限)과 흥(興), 멋과 태(態)를 고루 갖춘 전통무용의 백미로 조선시대 무사(巫祀) 금지령으로 인해 기방으로 흡수된 후 결코 한이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와 권선으로 승화시킨 기쁨 지향적인 춤이자 절제된 호흡과 움직임으로 품격과 세련이 어우러진 절제미의 극치를 이룬 춤이라 하겠다(황경숙, 이주연, 2004). 승무(僧舞)<그림 7> 또한 절제의 미가 응축된 정중동(靜中動)의 묘미를 간직한 춤으로 장삼(長衫)자락을 힘껏 뿌리고 안으로 기(技)를 모아 풀고 머물러 어르는 동작은 고요함과 역동성의 양면성이 어우러져있으며, 탈춤<그림 8>은 엄격한 예술성을 지향하는 무대보다는 마당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객과 연희자의 구별을 두지 않고 추임새를 통해 관객이 연희에 동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원적 일탈미를 느끼게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음악은 서양보다 템포가 느리며, 식물성 재질의 악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호흡 중심적 문화 토양에서 발효된 명상적·정적 특수성을 지니는데, 정악은 유장미, 정관미, 화평미가 민속악은 파격적·질박·애련한 미감이 나타나며, 굿을 할 때 연주하던 속악 시나위 또한 대금, 해금, 아쟁, 피리, 징을 중심으로 악보없이 연주하는 즉흥적인 음악이다. 또한 대금의 찢어지는 청소리 연주법이나 파열음 일색인 판소리의 거친 창법, 술대로 내려찍는 거문고의 야성적인 연주법은 자유분방함을 좋아하고, 격식이나 틀을 거부하는 한국인의 성향을 엿보게 하는데(최준식, 2000), 이러한 일탈에 뿌리를 둔 한국 음악의 본질은 고유성이나 제켈(Seckel)이 말한 기교적인 완벽에의 무관심과도 상통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면극과 인형극 등 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전통연극은 표현상으로는 경박한 희극으로 여겨지나, 인생관과 세계관만은

계층을 초월해 포괄적으로 수용한 현세주의적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꼭두각시놀음은 민속놀이로 전승되면서 대중의 불만 해소형으로 풍자극화됨으로써(유민영, 1985) 자유분방한 한민족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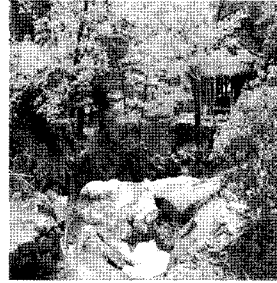
(3) 건축

소담한 민단청의 민가<그림 9>에서 느껴지는 간결성과 자연의 일부인 듯한 초가집들은 한국 건축의 무작위적 요소로 건물과 주변 지형의 조화미를 염두한 친자연적 의미를 내포하며, 천지자연의 이치·태극 음양론적 사유에 순응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조민환, 2003). 즉, 기(氣)의 순환과 정신을 중시하는 사유체계는 인간, 자연, 우주와의 교류 및 총체적인 조화를 위해 비워놓는 허·공의 심오한 가치로 이는 비대칭, 불균형에 의한 파형의 미를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진민, 김민자, 2006).

서양 건축이 내적 구성과 폐쇄적 조직을 강조·객체의 형태를 추구했다면 한국 건축은 객체의 형태와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 및 허한 방과 마당을 두어 무 또는 여백의 미를 줌으로써 참여자에 의해 건축의 본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안팎을 명백히 구분하기 보다는 낮은 담장에 의해 외부환경을 내부로 수용하려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여백이 대상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양건축의 미는 건축물 자체보다는 건축물과 자연 및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개방된 환경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창조에 의한 절대미보다는 자연의 기를 파악, 자연의 미와 연계시킴으로써 기교나 형상의 일탈에 따른 미를 추구한다. 한국의 대표 정원인 소쇄원<그림 10>을 보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과 달리 인공적인 흔적을 배제한 자연과 미 분리된 단아한 형태로서의 융화미가, 소담한 계곡의 원형만이 남은 단조로운 카오스(Chaos)의 상태로서의 절제미와 일탈미가 녹아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조형의 달레마를 극복



<그림 9> 전통가옥, 조선



<그림 10> 소쇄원, 담양

<표 2>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미의식

항 목	미술/공예	무 용	음 악	연 극	건 축	미의식
전체적 통합미	민화(풍속화)	살풀이, 승무, 탈춤	정악	가면극, 인형극	전통가옥, 초가집, 소쇄원	일원미, 화합미, 불이미, 융화미
자유분방의 미	이형토기, 민화, 장승, 막사발, 분청사기	굿, 탈춤	민속악, 시나위, 대금, 거문고	가면극, 인형극, 꼭두각시	소쇄원	해학미, 익살미, 일탈미, 파격미
무작위의 미	이형토기, 수북화, 막사발, 분청사기	살풀이, 승무	판소리, 거문고		전통가옥, 초가집, 마당, 담장	간결미, 은폐미, 여백미, 절제미, 자연미, 공(허)의 미

하기 위해 곡선과 비균제의 조화, 남겨진 사유공간에 대한 심미화 등을 발현하고 있다. 무위의 본능은 자연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원전 민무늬토기나 우리민족의 백색애호사상을 비롯해 목공예의 무늬 모서리, 인위적 문양이 배제된 분청, 담채(淡彩) 사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병식, 2002).

이처럼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그 동안 고유성을 비롯해 김원룡, 백기수, 최순우, 조요한, 권영필, 김영기 등이 한국 미술을 통해 규정한 한국의 미·자연미, 익살(해학)미, 소박미, 탈기묘미, 곡선미 등·와도 흐름을 같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21C 패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 경향

2001년 S/S부터 2009년 F/W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25명의 패션사진 864장을 중심으로 뷰티디자인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격화된 디자인 원리를 초월해 순수함을 추구하는 반꾸밈 양상의 자연적 경향과 균형·조화·대칭 등의 디자인 원리를 고려한 꾸밈 양상의 고전적 경향, 상대적·양립적 개념의 혼용에 따른 꾸밈·반꾸밈적 양상의 절충적·유머적·퇴폐적 경향 및 과시적 빈곤함을 표출하는 반꾸밈의 빈곤적 경향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자연적 경향(Naturalism)

자연주의란 자연을 양식화하거나 개념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주의로 본래의 체형을 변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한다(김희연, 김영인, 2006). 즉, 꾸밈없는 소박·순수한 이미지를 취함으로써 인위적 느낌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얼굴에 어떠한 색과 형을 부여하지 않은 누드(Nude)메이크업에서 최소한의 메이크업만으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하는 절제된 로맨틱시즘을 말한다(그림 11(1))-(그림 11(2)). 이는 자연의 가치를 중시한 사회적 분위기와 과거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패션쇼에서는 메이크업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므로써 의상으로 시선을 머물게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헤어디자인에서는 긴머리를 늘어트리거나 자연스럽게 늘어 올린 업스타일 등 의도성이 결여된 장식의 극소화현상을 보인다(그림 11(3))-(그림 11(4)).

2. 고전적 경향(Classicism)

고전이라 함은 조화, 균형, 평정과 같은 이성을 기초로 과거 예술에 바탕을 둔 역사적 전통이나 미학적 태도로서(김미경, 2001)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화·대칭·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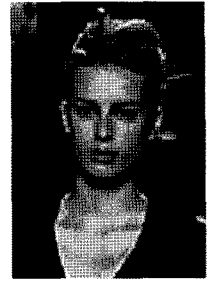
(1) Balenciaga, 2005 F/W



(2) Y. Yamamoto, 2007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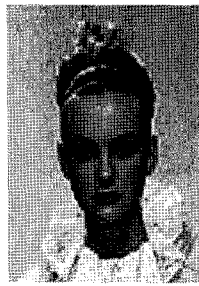


(3) A. Berardi, 2007 S/S



(4) D. V. Noten, 2006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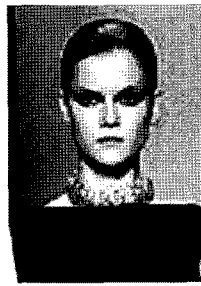
<그림 11> 자연적 경향



(1) Valentino, 2007 S/S



(2) Viktor & Rolf, 2008 S/S



(3) Balenciaga, 2008 F/W



(4) Givenchy, 2007 S/S

<그림 12> 고전적 경향

례 등의 원리가 반영되어 반듯하게 다듬어진 정제미의 추구를 의미한다. 즉, 실험적 경향의 인위성이나 과도한 장식은 배제되어 있으나 이목구비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완벽한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클래식 메이크업<그림 12(1)>~<그림 12(2)>이나 깔끔하게 빗어 올린 업스타일 및 가지런하게 정돈된 톱헤어<그림 12(3)>~<그림 12(4)> 등 뷰티디자인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상과 조화를 고려한 꾸밈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3. 절충적 경향(Eclecticism)

과거 특정 시대의 역사성이나 비서구 주변 국가의 지역성을 차용한 복고(Retrospective)·다민족(Multinational)적 이미지를 비롯해 히피(Hippie)·펑크(Punk) 등의 하위 문화적 요소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신비적·복합적·극단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상대적·대립적 개념의 절충·왜곡·변형을 통한 제 3의 이미지 양산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탈경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시공간·계

층적 측면의 상호교류 뿐 아니라 전 영역의 경계를 초월한 모호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무한한 새로움(Novelty)을 실현하려는 창조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 모두 역사적 요소나 복고스타일<그림 13(1)>, <그림 13(4)> 및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차용·변형<그림 13(2)>, <그림 13(5)>하거나 펑크 및 히피족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재해석<그림 13(3)>, <그림 13(6)>해 스모키(Smoky)하면서 펑키(Punky)한 느낌과 지저분한듯하면서 치렁치렁한 헤어스타일로 표현한다. 특히 절충적 경향의 뷰티디자인에서는 패션쇼 테마에 부합되는 기본 역할을 초월해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표현 예술의 장으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다.

4. 유희적 경향(Humor)

유희란 자유로운 감정 및 충동의 발산과 해방감을 위해 일상적 규칙의 위반, 이질 요소의 도입, 강조·변형·외설·모순·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



(1) C. Lacroix, 2009 F/W (2) J. Galiano, 2006 S/S (3) Lanvin, 2008 F/W (4) A. McQueen, 2005 F/W (5) C. Dior, 2002 S/S (6) J. P. Gaultier, 2008 S/S

<그림 13> 절충적 경향



(1) Commes des Garçon, 2005 F/W (2) V. Westwood, 2008 F/W (3) A. McQueen, 2009 F/W (4) J. Galiano, 2009 S/S

<그림 14> 유희적 경향

움과 쾌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하지수, 1994), 실험적 경향의 패션에서 많이 보여진다. 메이크업에서는 이목구비 형태의 무시·변형·과장을 비롯해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엉뚱한 곳에 배치한 키치(kitsch)적 표현이나 어울리지 않는 이질 소재를 가미한 콜라주(Collage)기법 등 비정상적인 부조화를 추구한다(그림 14(1))-(그림 14(2)). 헤어디자인 또한 형태를 부자연스럽게 변형 또는 극도로 과장하는 등 초현실주의(Surrealism)적 표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실험적 양상을 보인다(그림 14(3))-(그림 14(4)). 즉, 형태의 극대화나 과도한 장식 등 비정상성을 통한 유희적 표현 또한 복잡한 세계로부터의 해방감과 정신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자유로운 감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5. 퇴폐적 경향(Decadence)

퇴폐주의란 19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행한 문예 경향으로 병적인 감수성, 탐미적 경향, 전통의 부정, 비도덕성 따위를 특징으로 하며(박선희, 2000), 퇴폐의 개

념 중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괴기스러운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묘사하는 그로테스크(Grotesque)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7)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요소의 결합·과장·왜곡을 통한 부조화 현상을 통해 웃음·공포, 재미·혐오 등의 양면 감정을 이끄는 반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정제된 고전미와 달리 혐오스럽고 기괴한 이미지나 추(醜)한 감정을 야기하는 반항적·파괴적 표현 또는 블랙컬러의 과용으로 죽음·절망·공포 등 극단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해체주의적 양상을 보인다(그림 15(1))-(그림 15(2)). 헤어디자인 또한 비정상적인 형태로의 변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데<그림 15(3)>-<그림 15(4)>, 이는 미적 요소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반미적 성향의 추를 미적 표현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의외미를 양산, 미의 표현 영역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 하겠다.

6. 빈곤적 경향(Poverty)

빈곤이란 부를 상징하는 장식적 요소를 버리고 단



(1) Viktor & Rolf, 2005 F/W



(2) C. Dior, 2003 S/S



(3) J. Watanabe, 2003 F/W



(4) Viktor & Rolf, 2003 S/S

<그림 15> 퇴폐적 경향



(1) Commes des Garçon, 2006 S/S



(2) J. Galiano, 2007 F/W



(3) V. Westwood, 2009 F/W



(4) A. McQueen, 2007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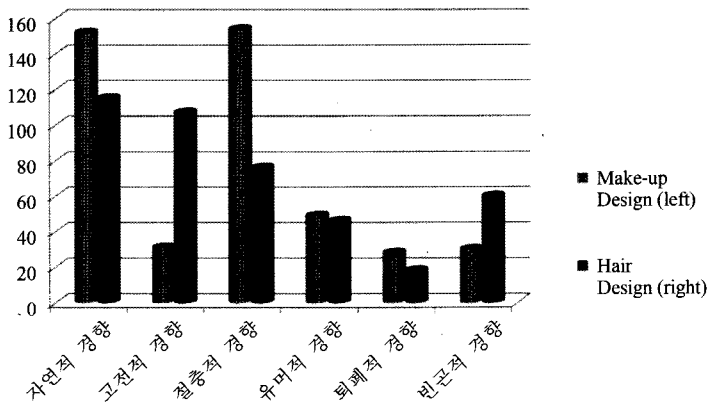
<그림 16> 빈곤적 경향

순·절제를 통해 완전한 것을 자제하는 역설적인 미의 표현이자 불형식의 미완성을 추구하는 축소 지향적 경향을 말한다. 즉, 부와 대비되는 과시적 빈곤의 양상으로 정형화된 미적 특성을 자제·왜곡시키거나 기본 구성 요소의 생략·은폐·변질을 통해 반미적인 파괴의 미를 추구함으로써 미적 표현을 다양하게 확대시킨다. 메이크업에서는 눈썹이나 입술 등 특정 부위를 생략·부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로 망가트려 지저분하게 표현하며<그림 16(1)>-<그림 16(2)>, 헤어스타일에서는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한 모습이나 완성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파괴시켜 부정적 감정을 유도, 나아가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경향을 말한다(그림 16(3))-<그림 16(4)>. 이와 같이 21세기 뷰티디자인의 경향에 따른 빈도와 분포도를 각각 <표 3>-<표 4>와

<표 3> 21세기 뷰티디자인의 전반적 경향

경향	구분	구분		
		Make-Up Design	Hair Design	합계
자연적 경향		152	115	267
고전적 경향		31	107	138
절충적 경향	복고적	55	58	113
	이국적	17	9	26
	하위문화적	82	9	91
유머적 경향		49	46	90
퇴폐적 경향		28	18	46
빈곤적 경향		30	60	93
합계		444	422	864



<표 4> 뷰티디자인 경향에 따른 분포도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자연적·절충적·고전적·빈곤적·유희적·퇴폐적 경향의 순임을 알 수 있다.

IV. 한국 미의식의 관점에서 본 21C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

이성적·분석적·절대적 가치 척도와 달리 감성적·통합적·상대적 사고체계를 갖는 한국 미학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미추의 구분마저도 하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데, 한국 종교와 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일원미·화합미·불이미, 익살미·파격미·해학미, 자연미·절제미-을 통해 뷰티디자인의 경향을 살펴본다.

1. 무작위적 자연미

무기교적 자연미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 인공적인 형태나 색상을 가하지 않은 반꾸밈적 경향으로 최근 문명의 발달과 자연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양에서의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격적인 대상이자 인간사회의 질서를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끊임없이 자연과의 통일성을 추구하는데,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에 있어서는 외적인 요소의 차용을 거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고수하는 자연주의적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의 소박한 미의식과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은 자연의 순연한 질서에 귀의하려는 무작위적 성향으로 본질만을 남겨두고 주변의 세부적인 장식을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단순한 형태를 추구한다. 특히 구조

적·폐쇄적 형태의 서양 건축물과 달리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외부의 자연환경을 내부로 수용하려는 순응적 삶의 태도는 인간과 자연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한국인의 열린 사고를 보여준다.

2. 통합적 다원미

복고·차연을 통한 역사적 요소의 시공간적 절충 및 타지역적 요소의 무제한적 수용에 따른 융합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조화에 가치를 두고, 모든 이치를 상극이 아닌 상생의 원리에서 바라본 유교나 사물의 관계를 서로로 인해 자유로이 존재하는 대대의 이치로 보는 도교, 모든 존재를 독립된 개별자가 아닌 상호 의존관계로 보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사물의 가치나 의미가 확정적이기 보다 주변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관계적·가변적·상대적 원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립된 이분법적 사고의 관계를 초월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절충적·다원적 경향은 뷰티디자인에 있어 혼성모방(Pastiche)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또한 끊임없이 새로움을 지향하려는 창작의지로 미추의 구분마저 초월한 통합적 사고의 융화미로 이어진다. 즉, 한국의 미술을 비롯한 여러 예술에 내재된 일원미, 불이미 등의 미분화 의식은 뷰티디자인에 있어 상대적·비결정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미적 표현을 무한하게 확대하는 다원미로 표현된다.

3. 해체적 일탈미

기존의 미적 표현방식을 탈피한 파격적 익살미 또

<표 5> 21세기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

한국의 미의식		뷰티디자인 경향	미적 특성	
종 교	예 술			
자연미, 절제미	간결미, 여백미	자연적 경향	무작위적 자연미	
융화미, 조화미	융화미, 화합미	고전적 경향		
융화미, 불이미, 통합미	융화미, 불이미, 일원미, 화합미	절충적 경향	복고적	통합적 다원미
			이국적	
			하위문화적	
해학미	익살미, 해학미	유희적 경향	해체적 일탈미	
파격미	일탈미, 파격미	퇴폐적 경향		
비균제미, 절제미, 공허미	은폐미, 절제미, 공허미	빈곤적 경향	절제적 빈곤미	

는 퇴폐미를 통해 무제한적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으로 디자인 원리의 접근에 있어 전통방식의 무시·변형, 이질적 아이템의 부분별한 혼용으로 해체적 양상을 추구한다. 해체를 통한 자유로움의 추구는 다양성과 신비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도교 및 한국 예술에 녹아있는 풍류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뷰티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키치나 풀라쥬기법 등의 무제한적 표현은 서양의 정형적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결국 냉소적인 웃음과 조소를 유발함으로써 정신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또한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부정적 이미지를 차용한 극단적인 표현 또한 천박하고 저속한 추의 개념을 미의 영역으로 수용, 무질서의 개념을 표방한 일탈적 표현으로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데, 이는 인간의 저변에 감추어진 회노애락의 다양한 감성세계를 찾도록 하는 한국 미학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4. 절제적 빈곤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려는 한국인의 삶은 어떠한 기교도 부리지 않는 무위자연의 관조적 태도에서 나아가 주변 요소의 과도한 절제·생략으로 이어져 대상을 더 거칠고 투박하게 만드는 빈곤미로 나타나는 데, 이는 한국의 막사발이나 분청사기에 나타난 비대칭·불균형·비정형의 파형의 미에서도 확인된다.

메이크업 및 헤어디자인에 있어서는 장식적 요소의 축소·은폐 뿐 아니라 기본 구성법을 무시·왜곡시킴으로써 완성된 균제미와는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비장식적·불균형적인 극소주의 경향을 의미한다. 즉, 고의적으로 망가트린 메이크업이나 헝클어진 헤어스타

일은 빈곤의 파괴적 성향을 수용한 반미적 표현방식으로 결국은 불결함의 미학으로 전환되어 역설적·반어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빈곤미는 더러움 뒤에 가려진 내면의 진실을 회복시켜 또 다른 미를 창출하려는 가능태이자 비움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절제적 표현으로 빈곤 속의 불완전성은 완전한 것을 자제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려는 한국 문화의 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 종교와 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의 관점에서 21세기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도출해볼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뷰티디자인의 다원상이 서양의 절대적·객관적·이분법적 대립구도의 부정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 의한 것만이 아닌 동양 철학의 상대적·주관적·통합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모든 개체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지속해간다는 해체주의의 관계지향적 측면과 각 장르의 결합을 통해 다원적 특질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화 경향은 패션에 비롯한 뷰티디자인 전반에 걸쳐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서양의 미적 가치체계가 아닌 한국의 종교와 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디자인이란 의상과의 다양한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전체적인 조화보다 의도적인 부조화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에 나타난 미의식은 자연미, 융화미, 조화미, 불이

미, 해학미, 파격미, 절제미, 공허미 등으로 한국 예술에 나타난 간결미, 화합미, 융화미, 불이미, 익살미, 일탈미, 파격미, 은폐미, 절제미, 공허미 등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둘째, 21세기 뷰티디자인의 경향 분석을 위해 최근 10여 년간 파리 Prêt-à-Porter 컬렉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험적 성향의 디자이너 27명의 작품 864점을 선별한 결과 자연적·절충적·고전적·빈곤적·유희적·퇴폐적 경향 순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패션쇼에 있어 뷰티디자인의 연출방식이 꾸밈과 반꾸밈의 양면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연적·퇴폐적·빈곤적 경향을 비롯해 절충적·유희적 경향에 포함된 반꾸밈 빈도가 최소 57% 이상인 것을 보아 뷰티디자인에 있어 추의 반미적 표현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 미의식의 관점에서 뷰티 경향을 접근해 본 결과 무자위적 자연미, 통합적 다원미, 해체적 일탈미, 절제적 빈곤미의 미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한국 미의식과 뷰티디자인 경향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해석되던 뷰티디자인의 다원적·절충적·해체적 양상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양 미의식의 수용에 따른 정반합의 일원론적·유기체적·통합적·상생적 관점 및 친인합일이라는 공존(Co-being) 개념의 동양 철학을 통해 접근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미래 패션뷰티의 다현상을 동양미학의 거시적·합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영필. (1992). 韓國傳統美術의 美學的 課題-한국 미학의 성립과 그 과제. *한국학연구학회*, 4, 10-14.
 김미경. (2001). *그리스 고전주의가 반영된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호. (1998). *동양 미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옥. (1999). *노자와 21세기* 上. 서울: 통나무.
 김희연, 김영인. (2006).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7), 31-41.
 부산세계대백과사전. (1997). 서울: 두산동아.
 민주식. (2000).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11, 61-76.
 민주식. (2003). 한국 전통미학사상의 구조. *미학예술학연구*, 17, 23-43.
 박경일. (2002). 동과 서의 발라드: 오리엔탈리즘의 환상을 넘어서. *동서비교문화저널*, 6, 59-90.
 박선희. (2000). 현대패션에 있어서의 크로테스크적 패션메이크업 특성.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329-339.
 유동식. (1997).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명걸. (2000). 서양의 미학이론과 한국 미학이론의 단초. *발전철학회 논문집*, 21, 281-307.
 유민영. (1985). 한국 전통연극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교수논문*, 45-61.
 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복식*, 56(5), 132-149.
 임두빈. (1991). 한국 민화의 미학적 고찰.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논문*, 545-568.
 정은혜. (2002). 한국 춤의 미학적 특성과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 *대한무용학회*, 33, 155-175.
 조민환. (2003). 태극음악설과 한국 전통예술의 미의식. *미학예술학연구*, 17, 93-112.
 채금석. (2004). 현대일본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복식*, 54(8), 129-146.
 최병식. (2002). 조선시대 민예의 미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31, 109-131.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 71-83.
 황경수, 이주연. (2004). 살풀이춤의 무용 미학적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511-524.
 황영성. (1977).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미학의 개관. *교수논총*, 45-46.